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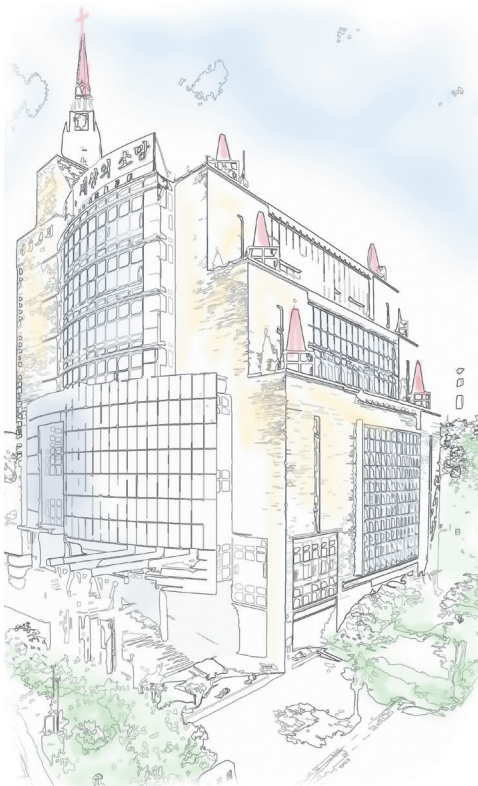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II

(요 9:4-12)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 일곱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의 기적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은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불합리한 치유 방법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요 9:6-7)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몇 가지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고쳐 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수 기도, 안찰 기도입니다. 마 20: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안수 기도가 나옵니다. 막 10:52에는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요 4:50에는 관원의 아들이 아팠을 때 가지지도 않고 나온 줄 믿으면 가라 하시므로 낫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도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것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기도라는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수 기도는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목사 안수는 믿음의 전수를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병 고칠 때 꼭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일을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물을 부어서 진흙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으니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한 짓이요 비 위생적인 행위입니다. 아주 비합리적인 것 같으나 한편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눈먼 사람 진흙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주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진흙을 하필이면 침으로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한 것 같아

도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흙을 이겨 발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찾아와서 병 낫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꼭 낫기를 원한다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의심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였습니다. 순종할 때 병은 낫습니다.

4. 기적을 보게 된 순종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요 9:7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주님의 명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필이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소경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순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은 잘 안 주십니다. 구하라고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바라고 구해야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십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무엇을 될 수 있게 하겠느냐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기도하면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주저했다면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맹인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마음눈을 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덜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의 강권에 의해 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자주 열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게 바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못 내놓을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께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원로 장로와 피택 장로와의 만남



지난해 11월 7일(주일) 선출된 제20대 피택 장로 10명은 교회와 노회에서 교육을 모두 마치고 3월 17일(목)에 있었던 장로고시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3월 24일(목) 노회에서 면접을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 일정을 끝내고 임직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오정수, 노문환, 서문석 세 분의 원로 장로들은 교육을 마친 피택 장로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주일 802호에서 만남을 가지며 피택 장로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노문환 장로는 잠언 22:4, 잠 3:5-6, 마 7:12 말씀을 피택 장로들에게 주시면서 겸손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과 성도들을 지극한 마음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였다. 또 교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서울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장로로 피택된 만큼 교회 회복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서문석 장로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수요일예배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권면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회 일에 솔선수범하며 매사에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시간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교인의 상담을 받아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급회(노회, 총회) 활동을 열심히 할 것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오정수 장로는 서울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피택된 20대 장로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과 같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 주는 심정으로 저들을 사

랑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좋은 세월은 다 갔으니 지금부터는 오직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며 장로는 개인의 일보다는 교회의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했다.

원로 장로들의 말을 경청한 피택 장로들 중 이강인 피택 장로는 교회의 분쟁을 겪는 동안 많은 목사님들에 대해 실망하고 오해를 했으나 노회의 교육을 받는 동안 그 오해가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고 하면서 장로 교육을 받은 대로 실천하고 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했다.

노제현 피택 장로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는데 장로로 피택되어 아직도 어리둥절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기왕에 장로가 되었으니 열심히 할 생각이라고 했다. 또 김혜언 피택 장로는 장로로 선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작년 7월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남복 권사님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아들이 장로 되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못 보고 돌아가셔서 많이 아쉬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명을 따라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은석 피택 장로는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늦게 주님을 만났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4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시 임직식을 갖게 되는 이들 열 분의 피택 장로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시기를 기도한다.

정리: 허숙 권사(편집부)

2022 사순절 캠페인



1. 회개와 기도의 시간



2. 한 끼의 식사, 주님의 몫으로! 한 잔의 차, 이웃의 몫으로!



3. 문화 절제 · 탄소 금식



4. 하나님의 복음 증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백승규 옥준용 장하랑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정기노회 4월 5일(화) 소망교회

서울강남노회 제70회 정기노회가 오는 4월 5일(화) 오전 9시 소망교회에서 개최된다.

우리 교회는 손달익 담임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전원과 임상현 장로 등 시무장로 전원이 참석하게 된다.



주여!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근 이웃 나라로 속속 피난길에 오른 가운데 국경을 개방한 폴란드에 가장 많은 피난민들이 들어가 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전쟁터를 빠져나오느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피난민 대부분은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도 매우 크다고 한다.

고려대 의료원 난민 자원봉사단 소속 의료진과 간호사 등 12명은 지난 3월 24일(목),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치료하기 위해 폴란드로 떠났다. 이들은 전원 고려대 의과대학 소속 최고 전문의들이며 여기에는 우리 교회 의료선교부 부장 정철웅 집사도 포함되어 있다.

정철웅 집사는 이식혈관외과 전문의로 2013년 여름 서울교회 단기 선교팀이 가 있는 카자흐스탄에 의료 선교팀으로 갔다가 현지에서 전신의 60% 이상 3도 화상을 입어 생사의 기로에 있던 7살 소녀 살리닷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살리닷을 한국으로 데려와 2달가량 머무르게 하면서 치료를 하도록 도운



▶ 폴란드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의료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철웅 집사(의료선교부 부장)

적이 있다. 그 해 단기 선교팀과 청년부는 살리닷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벤엘 하우스에서 자선 음악회를 열어 펀드레이징으로 치료비를 모금하였다. 살리닷은 정철웅 집사가 있는 고대 안암 병원에서 10번이 넘는 피부이식 수술과 재활치료 등 최고의 치료를 받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 이 일로 무슬림이었던 살리닷의 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그 동네의 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고려대 의료원 봉사단은 폴란드 전역을 돌며 피난민들의 건강상담과 의약품 및 의료지원금 전달, 신종 코로나 방역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올 예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고통 가운데서 러시아의 침략까지 받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속히 종식 되어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

정리 : 허숙 권사(편집부)

천국시민 양성 - 영·유아부

서울교회 영유아부 사순절의 기도



강남희 전도사 (영·유아부 지도)

서울교회 영·유아부(영아부 부장 : 이갑연 권사, 유아부 부장 : 임대중 집사)에서 3월 26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8분간 “사순절 탄소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영·유아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단 음식, 미디어, 탄소 금식 등을 실천하고 적극적으로 더욱 기도와 말씀 읽기에 힘쓰며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소극적 참여인 절제와 적극적 참여인 기도의 방법을 통합하여 그 약속의 실천으로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등을 모두 끄고, 기도의 불을 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교회가 제안한 사순절 캠페인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들 모두 참여한 8분 동안의 기도 영상을 제작하여 각 가정에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불을 끄고 8분 동안 교사들이 제작한 기도 영상을 통해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여러 가지 수고로 자녀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직 어려 잠 시도 가만 있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8분이라는 기도 훈련의 시간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토요일 저녁 줌으로 함께 만나 기도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한 영·유아도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전등 끄고 기도의 불”을 켜는 작은 실천을 통해 영·유아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권사회 헌신예배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 권사회(회장 : 박미혜 권사) 헌신예배가 있었다.
 손달익 담임목사님은 이날 설교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 (요 20:11-18)를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권사회, 기꺼이 헌신하는 권사회, 기쁨으로 헌신하는 권사회가 되기를 당부하셨다.



예배를 인도하는 박미혜 권사(회장)



기도 인도하는 장호림 권사(부회장)



성경봉독하는 최종희 권사(총무)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확인 | 1년2독 | 확인 |
|-------|----|----------|----|-----------|----|
| 4월4일 | 월 | 삼상 13-15 | | 시 66-73 | |
| 4월5일 | 화 | 삼상 16-17 | | 시 74-80 | |
| 4월6일 | 수 | 삼상 18-20 | | 시 81-91 | |
| 4월7일 | 목 | 삼상 21-24 | | 시 92-102 | |
| 4월8일 | 금 | 삼상 25-28 | | 시 103-107 | |
| 4월9일 | 토 | 삼상 29-31 | | 시 108-118 | |
| 4월10일 | 주일 | 삼하 1-3 | | 시 119 | |

- 2022 순례자 캠페인 -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



순례자는 2022년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꾼다'를 슬로건으로 한 환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참여 방법

1. 내가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생활에 관한 글이나 인증 샷
 2. 플로깅(plogging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환경운동), 비치코밍(beachcombing 해변 쓰레기줍기) 등 MZ세대의 친환경운동 인증 샷
- * 참여 기간 2022년 4월 22일(지구의 날)까지
 *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소정의 친환경 제품을 드립니다.

* 보내는 곳

순례자 유은경 집사 (yoolulu@hanmail.net)

동 정

- 떡 제공 : 2교구 송성태 집사 · 최정숙4 권사 가정 (은혜중에 장례를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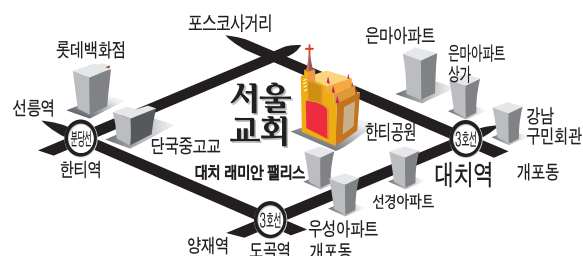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다섯째 주간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2.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선교지와 미사립교회를 돌보아 주소서.
3.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속히 오도록 역사하시고, 이 땅에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향한 진전이 있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찬 양 예 배 | 오후 4시 30분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새 벽 기 도 회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